

이제 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5>

관세음보살 염하면 복 만나

불자들을 향해 당신이 믿는 불교의 신앙대상 가운데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단연 관세음보살을 으뜸으로 꼽을 것입니다. 수많은 관음성지와 각 사찰마다 끊이지 않는 관음기도만 보아도 관세음보살이 얼마나 우리 불자들에게 가까운지 알 수 있습니다.

정자 최고로 추앙 받아야 될 교조이신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더욱 불자들의 인식 속속에 이처럼 관세음보살이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은 그 만큼 관세음보살의 중생을 향한 원력과 자비가 크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천수천안관세음

은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여 그 잘못을 놓치는 예가 없지 않습니다. 늘 말해왔듯 경전은 비유와 상징으로 중생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주된 주제는 거의가 중생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설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오는 불구덩이 아니 바다나 산봉우리니, 족쇄니, 독종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중생들 마음속에 들어 있는 번뇌와 미혹을 상징한 것으로 수행 차원에서 이해해야 옳습니다. 즉 불구덩이는 중생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애욕을 말하는 것이며, 바닷물은 어리석음과 집착을 말하는 것이고, 산봉우리는 고독과 절망을 말하는 것이며, 독과 같은 탐욕과



보살 대비 심 대대라니 경을 비롯하여 <능엄경>이나 <화엄경> 등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경전은 역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이 경은 예로부터 <금강경> 그리고 <원각경> '보안 보살장'과 더불어 불자들에게 항상 수지독송 되어 왔던 경으로 특히 중생의 크고 작은 소원을 들어 준다는 믿을 측면에서 더욱 선호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 것은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염할 때 받게 되는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가피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수호신이며 만능의 해결사로 불고 믿는 사람은 고통 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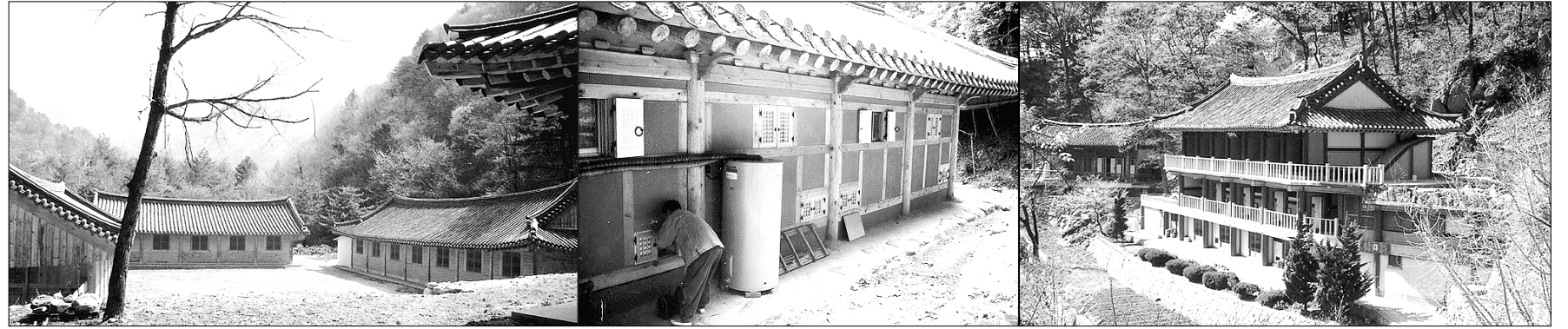
그러다 보니 많은 불자들은 이 경을 붙여 있어 자신의 욕심이나 들어주고 액이나 막아주

마음에서 번뇌 사라져 해탈 이룬다는 의미

악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족쇄에 묶였다는 것은 온갖 인연과 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음을, 악한 집승과 독충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가지 악하고 독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귀신을 만나고 저주를 당한다는 것은 마음이 산란하거나 사되게 되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모든 액란이 소멸된다는 말씀은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이 해결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번뇌들이 사라지게 되어 마침내는 해탈을 이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항상 마음에서 염하되 그로써 자신의 마음을 되비추어 저 번뇌들을 깨뜨리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무엇인지 진정 알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밖에서 오는 재난이나 막으려는 목적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어리석음만 더해져 같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유마선원장>



왼쪽부터 백담사, 백련사, 대자암 무문관. 가운데는 백련사 무문관 뒷쪽에 난 공양구를 통해 음식을 넣어주는 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중생의 시방세계가 거대한 무문관”

알아보시다/ 조사선 전통 잇는 무문관 수행

“무문관에서 깨달음을 얻고 벽을 박차고 나오는 것은 곧 자신의 거짓된 집착을 완전히 부수어 내외가 명백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단순화하여 오롯이 일념으로 화두의심만 행하는 것이니 최소한의 생활로 선정삼매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방이 막힌 무명속에서 생사(生死)의 활로를 찾는 과정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시방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무문관입니다.”

좁은 독방에서 자물쇠 걸고 3개월에서 3년 면벽참선

2월 28일 원적이 든 관음 스님(조계종 명예 원로위원, 직지사 조실 역임)은 지난 2000년 본지와외의 인터뷰에서 무문관 수행에 대해 이렇게 밝힌 바 있다. 관음 스님이 6년간 천축사 무문관에서 용맹정진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생사(生死)의 관문을 뚫는 무문관 수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무문관 수행이란 = 겨우 한 사람이 거거할 만한 공간, 한 번 들어갔다 하면 몇 년이고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다. 독방은 가로 한칸, 세로 두칸 크기의 좁은 공간이다. 수세식 좌변기와 간이 샤워기가 설치돼 있고 상하가 쉬은 음식물을 넣어둘 수 있는 작은 냉고도 한 대 있다. 매일 오전 11시 방마다 유일하게 외부와 통하는 작은 공양구(供養口)가 열리고 사방을 맡은 스님이 음식을 넣어준다. 이처럼 4면이 벽인 방 안에서 문을 자물쇠로 걸고 최소 3개

월부터 3년 동안 면벽참선하는 것을 '무문관(無門關) 수행'이란 한다.

'무문관'이란 명칭은 송나라 무문혜가 선사 가지는 선어록 이름을 딴 것이다. ◇무문관 수행의 유래 = 문을 닫아걸고 정진하는 '폐문 정진(閉門精進)'법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달마 대사의 면벽 9년이 시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규봉종일 선사는 <도시(都市)에서 달마선법인 '벽관(壁觀)'을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안으로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서 마음이 장벽과 같으면 도에 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면벽하여 마음을 본다'는 의미에서 '면벽관심(面壁觀心)'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 달마 대사의 '면벽선'은 마음을 장벽과 같이 요지부동한 상태에서 도와 하나 되는 선 수행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훗날 조주, 고훈 스님 등이 죽기를 각오하고 정진했다는 '사관(死關)'도 무문관 수행의 일종이었다. 한말 경허 스님이 동학사에서 폐문 수행하고, 일제시대 효봉 스님이 금강산 신계사 선방에서 3년간 두문불출하며 정진한 것도 무문관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문관'이 하나의 보통명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64년 도봉산 천축사에서 주지 정영 스님(현 대자암 조실)이 '무문관'이라는 참선수행도장을 세우면서부터다.

◇국내 수행 현황 =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선

원은 천축사에 처음으로 무문관 수행 기풍을 세운 정영스님이 20여년의 정성으로 조성한 93년에 3층 규모의 '삼매당(三昧堂)'이란 이름의 선원이다. 현재 제1 무문관선원에 비구니스님 4인 등 10명이, 제2 무문관선원에 비구니스님 3명 등 7명이 5개월과정으로 무문관 수행 중이다.

대자암에 이어 94년 문을 연 무문관은 제주도 남국선원(선원장 해국). 현재 7명의 중진급 수좌들이 정진 중이다.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 5년 후까지 접수가 끝난 상태.

98년 여름에는 설악산 백담사에도 '무문선원'이란 이름으로 무문관이 생겼다. 2000년 4월부터 3년과정으로 5안거 이상을 지낸 9명

1964년 천축사에 첫 개관

매년 40여 수좌 무문관에

의 스님이 정진결제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해안거부터는 8명의 비구수좌들이 3개월과정으로 정진하고 있다.

2002년 4월 10일에는 강진 백련사(주지 해일)도 처음으로 무문관 입제 방부를 받았다. 매 안거 때마다 5명의 스님들이 무문관 수행을 하고 있다.

이밖에 2002년 통도사 백련암 죽림굴에서 3년간 독방 좌선을 마친 원산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처럼 개인적으로 무문관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적지 않다. 수좌스님들은 알려지지 않은 토포까지 포함하면, 무문관은 10여곳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다 합치면 무문관 수행자는 40여명에 달하며, 매년 안거에 드는 2,000여 수좌의 2%에 달한다.

현재 수좌계에서는 종림선원인 봉암사에

6년 결계 마친 스님 3명

현재 원공스님만 살아계셔

30여명 정원의 무문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천축사 무문관 거처간 고승들 = 1964년 천축사 무문관은 6년 결계에 들어갔는데, 2회차를 마친 후 79년까지 100여명의 수좌들이 방부를 들었지만 기한을 제대로 채운 스님은 그리 많지 않아 2회만에 중단됐다. 너무나 규칙이 엄했기 때문에, 보문 관음 구암 제선 현구 지효 경산 도천 관목 현장 도영 석영 무불 원공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만이 이름을 남겼을 정도다.

이들 중 6년 기한을 채운 스님은 3명에 불과하다. 1회 때는 관음, 제선 스님이, 2회 때는 구암 스님이 원만회향 했으며 원공 스님은 2년 늦게 들어와 4년만에 구암 스님과 함께 과정을 마쳤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산에 도라지를 심는 사람들'과 함께 국토 순례 행진(行禱)을 하고 있는 원공 스님이 유일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선사 7인 초청법회 여는 지범 스님



“선방에서의 대중 정진은 결제기간에 쫓겨 흐름이 끊기기 쉽지만, 무문관 수행은 정진력이 붙을 때까지 치열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문관 수행은 1년 내지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99년 백담사 무문관선, 96~97년

무문관 수행 “1~3년이 적절”

갑사 대자암 무문관 수행을 마친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은 96년 대자암에서 정진할 당시, 6개월만에 무리 14kg이나 체중이 빠졌다. 참선 중 화두에 대한 의정과 호흡, 번뇌망상까지 모두 화두를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상태인 타성일편(打成一片)

이 되기 마련이어서 하루 1kg의 공양마저 거르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심이 지속되다 보면 잠도 오지 않아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진다고 한다.

무문관 수행에서 얻는 힘으로 서울 도심에 참선도장을 일구고 있는 지범

스님은 3월 21~27일 보문사에서 7일간 '선사 초청 산림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는 고우각화사 선원장, 21일, 일요(월명산 선원장, 22일), 현산(현화사 선원장, 23일), 해국(남국선원 선원장, 24일), 무어(축서사 주지, 25일), 대원(학림사 조실, 26일), 혜정(법주사 회주, 27일) 스님 등이 법사로 나선다. (02)823-7443

김재경 기자

BBS 광주 불교 방송 개국 9주년 특집 공개방송

범능스님의 노래 이야기



최루탄가스로 뒤덮인 금강로에서
광주출전기를 목놓아 부르던
민중가수 정세현이
수행자가 돼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높았던 목소리 대신
울림이 있는 시색의 메시지로 세상을 밝히는
범능스님의 음악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연 / 노래하는수행자 범능스님
국악실내악단 왕토끼
소리꾼 고연미, 주소연
MC / 방송인 이진화

*때 / 2004년 3월 14일(일) 오후 3시
*곳 / 광주신세계백화점 야외무대

주최: BBS 광주 불교 방송 협찬: 광주신세계백화점 / 신세계 성형외과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 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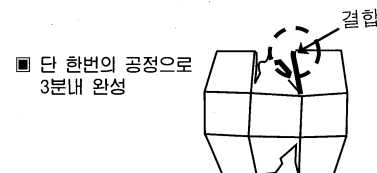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형편의 공정으로' 이물담고 및 스러움 등, 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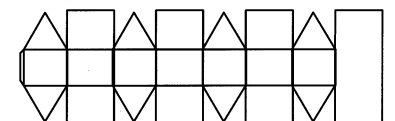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승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 하여 불속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할 '시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풀칠 상태 (풀칠 및 인쇄결지 하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 (043)877-6464 팩스: (043)877-8239 핸드폰: 016-552-9360

주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 (주)국민핀엔트) 농협 415051-51-000057 (예금주: (주)국민핀엔트)